

“금리는 변동형으로... 이제 주식에 관심을”

홍정웅 광주은행 자산관리 부장이 권하는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홍정웅 부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음에도 시장금리는 오름세다.

한국은행이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연 2.92%로 199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점을 찍었지만 9월 0.10%포인트 오르면서 3%대(연 3.02%)에 접어들었다.

31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서 만난 홍정웅 WM(Wealth Management·자산관리)사업부 부장은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채권 금리의 일시적 폭등(오버슈팅) 국면에 접어들고 과도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리 방하기를 맞아 지역민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을 홍 부장으로부터 들었다.

◇당분간 변동형 금리 선택 유리=가계대출 금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51%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일부 은행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지난 달보다 올렸고 최근에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다.

고정형 금리와 변동형 금리 가운데 고인

시장금리 오름세 현상

채권 금리 일시적 폭등 과도기

달러 연말 1100원 수준될 듯

채권시장 투자 매력 감소

미국 중심 글로벌 펀드 관심을

부동산은 주거용에 주목해야

하는 이들에게 홍 부장은 당분간 고정형 금리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귀뜸했다.

그는 “고정형을 선택한다는 건 금리가 향후 오를 것을 전제하는데, 한동안 금리가 오르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경기가 확실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요인이 있고 내년 한 해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없애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이제는 주식으로 관심을 다시 돌려볼 때”라는 것이다.

환율 시장 전망으로는 원화 가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이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120원에서 1160원 대까지 40원 넘게 상승했다. 1190원까지 급등할 당시 전문가들은 ‘원화약세 오버슈팅’ 국면으로 판단했다.

다만 오버슈팅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 등이 완화되고 한국 수출이 회복되는 긍정적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원화값이 약세로 전환하면 환차손을 우려해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 부장은 “글로벌 경기, 달러 유동성 팽창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갈수록 원화 가치 회복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연말에는 달러가 11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 말했다.

◇안정 추구 ‘인덱스’ 등 ‘패시브’ 펀드 대세=홍 부장은 현 금융시장을 ‘크게 먹먹’하게 없어진 채권시장 vs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주식시장’으로 요약했다.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없애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이제는 주식으로 관심을 다시 돌려볼 때”라는 것이다.

올 하반기를 포함한 내년 펀드 시장에서는 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성과

의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인덱스 등 ‘패시브 펀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채권의 투자매력이 감소했다면 미국 중심의 글로벌 펀드를 눈여겨 볼 것을 추천했다. 신흥국 국채도 떠오르고 있는 상품이다. 아르헨티나와 같이 불안 요소를 가진 국가보다는 중국·러시아·브라질 등 채권형 펀드를 추천했다.

홍 부장은 “기업이익의 하향조정이 계속됐음에도 한국 증시는 올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며 “외국인 액티브 투자자의 역할은 거의 없고 패시브 투자자가 시장을 움직이고 신형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 오면 국내 여건과 상관 없이 하반기에 시장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보다는 내년 2600선이 전망되는 코스피에 관심을 갖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단기자재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시대 투자처로는 수익형 부동산이 급부상하고 있다. 홍 부장은 “인구 구조적 요인과 경기 영향으로 창업이 부진한 상업용 부동산 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나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1인 가구가 늘면서 평형 따라 수익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교통 입지 등 생활 여건이 좋은 주거용 부동산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연말정산 알아두면 유용한 4가지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이용자 이통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령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자료/국세청 연합뉴스

지출 예정액·급여 입력하면 예상 공제·세액 한 눈에 본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히 따져볼 수도 있다.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팀(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30% 소득공제

올해 바뀌는 세제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유용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통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령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연합뉴스

NH-아문디, 공공시설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협약



자산운용사 NH-아문디(대표이사 배영훈)는 지난 30일 농협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센터장 나승운)와 센터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공공사회시설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NH-아문디는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광주·전남지역 16개 공공사회시설에 1억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NH-아문디 제공)

‘네이버 통장’ 나온다

주식·보험·카드 등 금융사업 본격화

네이버는 11월 1일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설립과 관련해 통장과 주식·보험, 신용카드, 예·적금 추천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앞두고 한 본격적인 금융 사업 진출 청사진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한성숙 대표는 이날 3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회의통화)에서 “결제 규모 확대를 통한 금융 사업의 기반을 키움과 동시에 미래셋과 협업해 새 시장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쇼핑·플레이스에서 일궈낸 성공 사례를 재현해 금융 상품 중개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용자는 다양한 혜택 속에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품을 추천받아 구매하고 금융업체는 효율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네이버파이낸셜은 기본적으로 커머스(상거래) 플랫폼 기반 결제 서비스”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3년 동안 금융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에 ‘네이버 통장’을 출시해 금융 사업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 대표는 또 “일반 이용자도 적은 금액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주식·보험 등 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네이버페이 가 가진 결제의 강점을 활용해 소액 결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후불 결제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수료 취득이 가능한 신용카드 및 예·적금 추천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검색·페이·부동산 등 금융 관여도가 높은 트랙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기반이 될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올해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지난 해보다 45% 성장하며 4조원을 돌파했다. 온라인을 넘어 ‘테이블 주문’ 등 오프라인 결제처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